

#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 불일치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 준거집단효과를 중심으로 -\*

안아림\*\* · 마강래\*\*\*

## A Study on Effects of Regional Income Level on Subjective Income Status, and impact on Subjective Well-being - Focused on Reference Group Effects -\*

Ahn, Ah-Rim\*\*, Ma, Kang-Rae\*\*\*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 공간단위라 할 수 있는 읍면동 수준에서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소득 분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개인의 삶의 만족감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계층인식은 낮아지는 하향불일치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감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요구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셋째, 계층인식 불일치 감소에 의한 삶의 만족감 변화는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삶의 만족감 변화가 더 큰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수준과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요구는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역 소득수준, 주관적 소득계층, 계층인식 불일치, 준거집단효과, 삶의 만족감

**Abstract** :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studies that show huge discrepancies between individuals' perceptions of relative economic position and the economic position based on the reported income in the survey. If this is the case, it is expected that the impact of perceived income status on individual happiness can be different from that of objective income status based on the reported incom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discrepancies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with respect to relative income status, focusing on the 'Reference group theory'. This study also tries to extend existing knowledge of the relative status on the happiness level of indi-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저자: anarim@khma.org)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교신저자: kma@cau.ac.kr)

viduals, by examining how individual's happiness can be changed by providing th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ir objective income level. There are systematic biases in perceived income status. A majority of people who actually rank in the lower part of income ladder place themselves in higher positions, while a significant portion of rich individuals underestimate their actual income status. Secondly, the misperception about the income distribution is affected by a variety of individual,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reference group income. Thirdly, providing individuals with accurate information has a considerable effect on their happiness level.

**Key Words** : Regional Reference Income Level, Subjective Income Status, Status Misperception, Reference Group Effect, Subjective Well-being(SWB)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9년 실시된 계층인식조사<sup>1)</sup>에 따르면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의 상위층<sup>2)</sup> 중 20%는 자신을 하위층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김유경(2012)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 30%가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계층을 상대적으로 낮게, 저소득층은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계층인식 불일치 현상의 원인으로는 상대적 비교를 들 수 있다. 특히 소득분배구조나 소득분포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가 제한된 부분에 있어 사람들은 자신이 참고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Stouffer et al., 1949; Merton and Kitt, 1950; Festinger, 1954; Knight et al., 2009; Curces et al., 2013). 이로 인해 계층인식은 주변사람과의 비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Hyman, 1942).

Curces et al.(2013)은 계층인식이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높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경우에 소득재분배 정책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을 밝히면서, 소득 분배구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소득계층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할수록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오준범 · 이준협,

2014),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삶의 만족감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계층인식의 불일치가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관련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Knight et al., 2009; Curces et al., 2013) 그러나 준거집단, 특히 가까운 이웃 등 작은 공간단위의 중요성은 간과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 집단이 마을사람들(poeples in the village) 또는 이웃(neighbours)임을 밝히고, 이들과 비교한 계층이 높고 낮음에 따라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으나(Knight et al., 2009), 객관적 계층을 인식할 때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 공간단위라 할 수 있는 읍면동 수준에서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을 인식한다고 가정할 경우 삶의 만족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읍면동은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 수준의 공간단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절에서는 준거집단이론과 함께 좁은 공간단위가 준거집단으로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확인하고, 기존 문헌에서 계층인식의 불일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한다. 3절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소득 분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개인의 삶의 만

족감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추정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 기존문헌 및 이론 검토

### 1) 계층인식 불일치에 관한 연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소득 계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금현섭·백승주, 2011; 김유경, 2012; 송하나 외, 2013; 김은희, 2015; 박지은·권순만, 2015; 정희욱, 2016; Hyman, 1942; Ravallion and Lokshin, 2002; Sosnaud et al., 2013). 대체로 고소득층은 객관적 소득수준에 비해 스스로 평가하는 소득계층이 낮고, 저소득층은 객관적 소득수준에 비해 스스로 평가하는 소득계층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Yadav, 2009; Lora, 2015; 김유경, 2012).

계층인식의 불일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의 소득계층을 객관적 수준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김은희, 2015). Cruces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수준보다 긍정적으로 계층을 인식했던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실제와 다른 계층인식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김영모, 1990). 둘째, 계층인식을 객관적 소득보다 낮게 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Cruces et al.,(2013)의 연구를 통해, 소득계층의 불일치가 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계층인식의 왜곡은 현실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해 정책적 판단이 현실과 괴리를 보일 수 있다.

전반적인 소득계층 또는 소득분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개인이 알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과 소득계층이 비슷하거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

하여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주관적 계층은 객관적 계층과 차이가 나게 된다(한준 외, 2014; Evans et al., 1992; Lora, 2015). 자신과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지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소득이 특별히 높거나 낮다고 느낄 가능성은 줄어든다. 소득이 높아도, 낮아도 자신은 중간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다.

### 2) 계층인식 불일치와 준거집단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계층을 평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주변사람들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계층이나 상태를 기층할 때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라 한다(Hyman, 1942; Shibutani, 1955). 준거집단의 영향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Kelly, 1952).

준거집단의 틀에서 주관적 계층을 살펴본 연구는 Hyman(1942)에 의해 최초로 수행되었다.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비교 대상의 특성에 따라 주관적 계층이 달라진다. 이는 준거집단 자체가 바뀌게 된다면 주관적 계층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계층을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소득 분배구조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거나,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사람을 참조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 함으로써 자신의 계층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Hyman, 1960; Evans & Kelley, 2004),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층을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게 된다(Evans et al., 1992; Cruces et al., 2013; Lora & Fajardo, 2013; Powdthavee, 2007).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읍면동과 같이 낮은 수준의 공간단위는 중요한 준거집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비교 집단을 누구로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했던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people in the village), 이웃(neighbours)이라고 응답하였다(Knight et al., 2009; Zhou, 2016).<sup>3)</sup> 이러한 응답 결과는 준거집단으로서 매우 작은 공간적 범위가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비교의 대상으로서

이웃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지역 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읍면동 단위의 경제적 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3) 계층인식과 삶의 만족감

준거집단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계층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Hyman, 1942), 주관적 계층은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Stouffer, 1949). 이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삶의 만족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계층이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은 기존의 문헌을 통해 실증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득, 부모와 비교한 재정상황(McBride, 2001), 재정상태인식(Johnson and Krueger, 2006), 응답자가 느끼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Graham and Felton, 2006) 등을 사용하여 주관적 계층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주관적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를 사례로 한 조사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비슷할 때, 주관적인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에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오준범 · 이준협, 2014).

이상의 연구를 통해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계층인식 불일치가 준거집단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준거집단으로서 이웃이나 마을 등 작은 공간 범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이웃이나 마을 등 범위에서 지역의 소득 수준, 계층인식의 불일치,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인식의 불일치가 감소할 경우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 3. 실증분석

###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계층인식의 불일치(주관적 소득계층 - 객관적 소득계층)를, 독립변수로는 거주 지역의 주택가격을 사용하였으며,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 상대적 비교와 관련된 변수를 통제하였다.

$$D_i = \alpha + \beta_{1i} + \dots + \beta_n X_{ni} + \gamma_1 C_{1i} + \dots + \gamma_n C_{ni} + \lambda_1 R_{1i} + \dots + \lambda_n R_{ni} + \varepsilon_i$$

$D_i$  = 계층인식 불일치

$X_1 \dots X_n$  = 개인 및 가구 특성변수

$C_1 \dots C_n$  = 상대적 비교 관련 변수

$R_1 \dots R_n$  = 지역 특성 통제 및 지역 소득 관련 변수

두 번째로, 소득분배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주어 진다는 가정하에, 자신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실제 소득수준과 같아진다면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증 방식은 주관적 소득계층과 객관적 소득계층의 차이가 개인의 소득재분배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rucese et al.(2013)의 실증 방식에 착안하였다. 그는 응답자에게 객관적 소득계층을 알려주기 전과 후의 소득재분배 정책 선호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개개인에게 객관적 소득계층을 직접 알릴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주관적 소득계층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WB_i = \alpha + \beta SS_i + \gamma_1 X_{1i} + \dots + \gamma_n X_{ni} + \varepsilon_i$$

$SWB_i$  = 삶의 만족감

$SS_i$  = 주관적 소득계층

$X_1 \dots X_n$  = 개인, 가구, 상대적 비교, 지역 등 통제변수

위 식에서 추정된 계수값을 사용하여 주관적 소득 계층과 객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감을 추정한다. 각각 추정된 삶의 만족감을 비교하여, 자신의 객관적인 소득계층을 알게 되었을 때 삶의 만족감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widehat{SWB}(ss)_i - \widehat{SWB}(os)_i$$

$\widehat{SWB}(ss)_i$  = 주관적 소득계층을 인식할 때 삶의 만족감

$\widehat{SWB}(os)_i$  = 객관적 소득계층을 인지한다고 가정할 때 삶의 만족감

2) 변수 구성 및 계층인식 불일치 현황

실증 분석을 위해 소득과 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조사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자료를 사용하였다.<sup>4)</sup> 조사 표본은 1,396개이며, 무응답 및 거주지역 불분명을 제외하여 총 1,166개 샘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1,184개 샘플을 분석하였다. KGSS는 조사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가 읍면동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지역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설문조사 자료이다. 특히 제10차(2012) 조사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인 ‘주관적 계층’과 ‘객관적 계층’, ‘삶의 만족감’ 관련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적합하다. 계층인식의 불일치와 삶의 만족감에 영향

〈표 1〉 소득분위(객관적 소득계층)별 주관적 소득계층

주관적 계층 소득분위 (객관적계층)	1	2	3	4	5
1	33.55	36.85	23.01	6.59	0.00
2	21.26	46.34	26.16	5.75	0.45
3	7.53	45.18	41.73	5.56	0.00
4	3.99	25.21	49.44	19.94	1.43
5	3.78	11.73	39.89	40.97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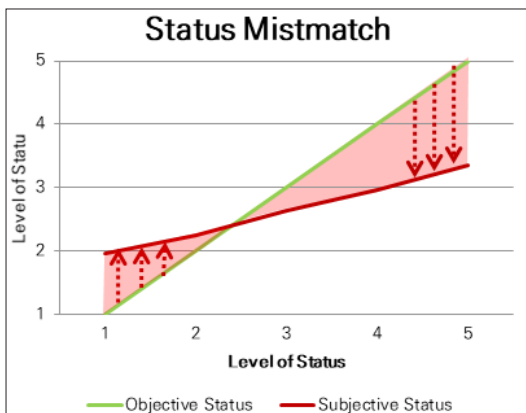
을 주는 요인은 개인 및 특성, 상대적 비교,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계층인식의 불일치는 주관적 소득계층에서 객관적 소득계층을 뺀 값이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은 상향불일치 경향을, 고소득층은 하향불일치 경향을 보였다.<sup>5)</sup>

이러한 패턴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김유경, 2012; Evans et al., 1992; Cruces et al., 2013; Lora and Fajardo, 2013).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하향불일치 경향에 비해 고소득층의 하향불일치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문헌에서 소득계층 또는 계층인식, 계층인식의 불일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로서 개인 및 가구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년수, 종사상태, 개인소득, 종교를 사용하였다(송한나 외, 2013; 김은희, 2015; 박지은·권순만, 2015).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원 수, 자녀 수는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통제변수로 함께 고려하였다(강은택 외, 2016; 임보영·마강래, 2015).

계층인식의 불일치는 준거집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인해 발생한다(Hyman, 1945). 선행연구에서 상대적 비교는 타인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비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사회경제적 계층 비교, 자신의 현재 대비 과거 및 미래에 대한 평가를 상대적 비교 변수로 사용하였다. 준거집단의 소득수준은 주거용 건물의 개별 표준지가격을 읍면동 단위로 산술평균하여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내생적 특성을 통제하



〈그림 1〉 소득수준별 계층인식 불일치 경향

기 위하여 거주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계층인식 불일치는 평균  $-0.42$ 로, 자신의 소득계층을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사용한 주관적 삶의 만족감은 평균  $4.94$ 로, 보통~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 3) 지역 소득수준이 계층인식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의 적합도(F-value)는  $11.07$ 로 유의수준  $1\%$ 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 설명력(Adj-R<sup>2</sup>)은  $0.19$ 로 분석되었다(〈표 3〉). 개인 및 가구 특성 가운데 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교육년수, 종사상태, 종교, 개인소득, 가구원 수가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수준을 객관적 소득계층보다 낮게 평가하지만, 일정 연령이 지나면 오히려 객관적 소득계층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년수가 길수록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낮게 계층인식을 하였으며, 기타 및 무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객관적 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계층을 객관적 수준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의 분석결과와 같다(Lora, 2015). 가구원 수는 많을수록 자신의 소득계층을 객관적 수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상대적 비교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과거 대비 현재 가계경제가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높은 계층인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타인과의 비교, 자신의 미래 경제적 수준과의 비교는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개인의 계층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지역의 소득이 높을수록 계층인식은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이 높더라도 지역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보다 자신의 계층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계층을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 수준에서의 지역구분 또한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광역시 및 비광역시 거주자의 계층인식이 소득계층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조동기(2006)의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핵심적 중산층 비율이 높지만,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지역적 측면에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의 계층인식이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경향은 소득 이외에 다른 지역적 요인이 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 4) 계층인식 불일치 감소와 삶의 만족감 변화

객관적 소득계층을 인식할 때 삶의 만족감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주관적 계층인식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표 4〉). 모형 적합도는  $12.11$ 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형 설명력(Adj-R<sup>2</sup>)은  $0.21$ 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역의 소득수준은 개인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거주자의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소득 및 소비수준, 경제적 수준 등이 높을수록 개인의 생활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강성진, 2010; 이소라·홍기석, 2012) 수도권의 높은 생활물가, 경쟁 수준 등이 원인 중 일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문헌의 분석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송, 2000).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은 높았으며, 미

〈표 2〉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종속변수 1	계층인식 불일치(-4~4)		-0.42	1.27	-	-
종속변수 2	주관적 삶의 만족감(1~7)		4.94	1.13	-	-
개인적 특성	성별	남성	-	-	584.89	49.39
		여성(참조 변수)	-	-	599.29	50.61
	연령	연령	44.07	16.54	-	-
		연령제곱	2211.35	1583.39	-	-
	결혼상태	기혼 유배우	-	-	648.66	57.31
		미혼	-	-	346.91	29.30
		이혼/사별/기타	-	-	158.61	13.39
	교육연수		11.87	4.10	-	-
	종사상태	전일제 임금근로자	-	-	349.64	29.53
		시간제 임금근로자	-	-	112.53	9.50
		자영업	-	-	205.85	17.38
		무급 가족 종사자/기타	-	-	516.16	43.59
	로그소득		4.61	4.61	-	-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참조 변수)	-	-	277.21	23.41
		보통	-	-	315.08	26.61
		좋음	-	-	591.89	49.98
	종교	무교(참조 변수)	-	-	516.66	43.63
		불교	-	-	309.95	26.17
		기독교	-	-	243.14	20.53
		천주교	-	-	106.78	9.02
		기타	-	-	7.65	0.65
	객관적 소득계층(소득분위)		2.99	1.41	-	-
	주관적 소득계층		2.56	0.96	-	-
가구원 수		2.90	1.35	-	-	
자녀 수		1.60	1.49	-	-	
사회적 비교	주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나보다 낮음(참조 변수)	-	-	69.26	5.85
		나와 비슷함	-	-	968.36	81.77
		나보다 높음	-	-	146.56	12.38
자기 비교	과거 대비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과거보다 나빠짐(참조 변수)	-	-	341.30	28.82
		과거와 비슷함	-	-	493.42	41.67
		과거보다 나아짐	-	-	349.46	29.51
	5년 후 예상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현재보다 나빠질 것(참조 변수)	-	-	137.00	11.57
		현재와 비슷할 것	-	-	409.73	34.60
준거집단	지역	수도권	-	-	563.97	47.63
		비수도권 광역시	-	-	264.38	22.33
		도	-	-	355.83	30.05
	준거집단 소득	평균 표준지가격(천 원/m <sup>2</sup> )	5.45	5.66	-	-
	관측수		1,166(가중치 1,184)			

주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3〉 준거집단의 소득이 계층인식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		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절편		-0.32	0.00	0.52	-0.61	
개인적 특성	성별 (남성=1)		0.00	0.00	0.07	0.02
	연령	연령	-0.03 **	-0.42	0.02	-2.1
		연령제곱	0.00 ***	0.53	0.00	2.84
	결혼상태(참조: 기혼유배우)	미혼	0.00	0.00	0.14	0.03
		이혼/사별/기타	0.21 *	0.06	0.12	1.85
	교육연수		-0.02 *	-0.07	0.01	-1.88
	종사상태(참조: 전일제 임금근로자)	시간제 임금근로자	0.17	0.04	0.13	1.31
		자영업	-0.09	-0.03	0.11	-0.87
		무급 가족 종사자/기타	0.37 ***	0.15	0.09	4.12
	로그 소득		-0.06 ***	-0.21	0.01	-7.61
	주관적 건강상태(참조: 나쁨)	보통	0.13	0.04	0.10	1.27
		좋음	0.03	0.01	0.09	0.30
	종교(참조: 무교)	불교	-0.04	-0.01	0.09	-0.50
		기독교	0.00	0.00	0.09	0.02
		천주교	-0.04	-0.01	0.12	-0.35
		기타	0.70 *	0.04	0.42	1.67
가구원 수		0.15 ***	0.15	0.03	4.63	
자녀 수		0.05	0.06	0.04	1.21	
사회적 비교	주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참조: 나보다 낮음)	나와 비슷함	0.13	0.04	0.17	0.79
		나보다 높음	0.00	0.00	0.15	-0.03
자기 비교	과거 대비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참조: 과거보다 나빠짐)	과거와 비슷함	0.09	0.03	0.09	0.95
		과거보다 나아짐	0.04	0.02	0.08	0.49
	5년 후 예상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지위(참조: 현재보다 나빠질 것)	현재와 비슷할 것	0.07	0.03	0.12	0.59
		현재보다 나아질 것	0.10	0.04	0.12	0.85
준거 집단	지역(참조: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0.30 ***	0.10	0.09	3.34
		도	0.21 **	0.08	0.10	2.23
	준거집단 소득	평균 표준지가격	-0.01 *	-0.06	0.01	-1.94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2)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래의 가계 경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 및 가구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 및 연령제곱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는 U-shape을 보였고, 기혼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삶의 만족감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교육연수가 길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무교에 비해 기독교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 4〉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소득계층을 알게 되어 계층인식의 불일치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삶의 만족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1분위의 삶의 만족감은 약 3% 감소하였고, 소득 5분위의 삶의 만족감은 5%가량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감 감소에 비해 고소득층의 삶의 만족감이 더 큰 증가율을



〈표 4〉 주관적 소득계층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절편		4.51 ***	0.00	0.46	9.81	
개인적 특성	성별(남성=1)		-0.02	-0.01	0.06	-0.38
	연령	연령	-0.03 **	-0.45	0.01	-2.25
		연령제곱	0.00 **	0.38	0.00	2.05
	결혼상태(참조: 기혼유배우)	미혼	-0.59 ***	-0.24	0.12	-4.79
		이혼/사별/기타	-0.39 ***	-0.12	0.10	-3.80
	교육연수		0.03 **	0.09	0.01	2.38
	종사상태(참조: 전일제 임금근로자)	시간제 임금근로자	-0.35 ***	-0.09	0.11	-3.11
		자영업	-0.03	-0.01	0.09	-0.28
		무급 가족 종사자/기타	0.00	0.00	0.08	0.04
	로그 소득		0.00	-0.01	0.01	-0.36
	주관적 건강상태(참조: 나쁨)	보통	-0.04	-0.02	0.09	-0.46
		좋음	0.47 ***	0.21	0.08	5.82
	종교(참조: 무교)	불교	0.07	0.03	0.07	0.87
		기독교	0.23 ***	0.08	0.08	2.86
		천주교	-0.10	-0.02	0.11	-0.89
기타		0.22	0.02	0.37	0.60	
가구원 수		0.01	0.01	0.03	0.26	
자녀 수		0.01	0.01	0.04	0.24	
사회적 비교	주변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참조: 나보다 낮음)	나와 비슷함	0.13	0.04	0.15	0.88
		나보다 높음	0.01	0.01	0.13	0.11
자기 비교	과거 대비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참조: 과거보다 나빠짐)	과거와 비슷함	0.27 ***	0.11	0.08	3.28
		과거보다 나아짐	0.03	0.01	0.07	0.38
	5년 후 예상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참조: 현재보다 나빠질 것)	현재와 비슷할 것	0.35 ***	0.16	0.10	3.49
		현재보다 나아질 것	0.09	0.04	0.10	0.85
준거 집단	지역(참조: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0.19 **	0.07	0.08	2.39
		도	0.14 *	0.06	0.08	1.65
	준거집단 소득	평균 표준지가격	0.00	0.02	0.01	0.58
주관적 소득계층		0.15 ***	0.13	0.03	4.37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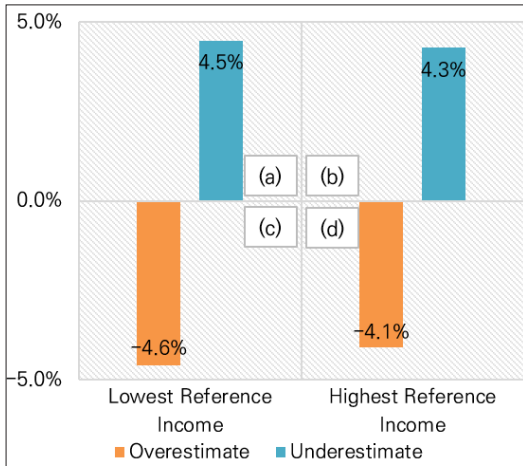
2)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보인 원인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계층인식 불일치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림 1〉참고).

계층인식 불일치 감소에 의한 삶의 만족감 변화는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삶의 만족감 변화가 더 큰 양상을 보였다. 〈표 5〉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보다 낮

은 지역에서 삶의 만족감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저소득 지역에서 자신의 계층을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높게 평가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자신의 객관적 소득보다 낮은 계층인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준거집단의 소득수준이 높을 때(〈표 5〉의 c)보다 낮을 때(〈표 5〉의 b) 삶의 만족도가



〈그림 2〉 계층인식 불일치 및 준거집단별 삶의 만족도 변화

더 크게 증가하였다. 준거집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소득층은 계층인식의 하향불일치가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계층인식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살펴본 경우에도,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삶의 만족감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객관적 소득계층보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았던 경우 저소득지역에서 계층인식 불일치 감소 후 삶의 만족감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 (a)).

#### 4. 요약 및 결론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상대평가가 일반화되고, 타인과의 비교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되는 주관적 계층은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은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기존의 문헌을 통해 밝혀졌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소득수준과 다른 계층인식이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나 근로의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을 또는 이웃과 같이 매우 좁은 공간단위를 비교의 기준으로 한

〈표 5〉 객관적 소득계층 및 준거집단별 삶의 만족도 변화 (단위 : %)

객관적 소득계층 (소득분위)	전체(a)	최저소득 준거집단(b)	최고소득 준거집단(c)
1	-3.41	-3.51	-3.40
2	-0.58	-0.69	0.73
3	1.66	1.64	1.47
4	3.32	2.88	3.75
5	4.94	5.43	4.41

다는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수준의 작은 준거집단과의 상대적 비교가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더욱이, 계층인식의 불일치가 감소할 때 삶의 만족감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읍면동의 주택가격을 지역 소득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나아가 계층인식의 불일치가 삶의 만족감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계층인식의 불일치가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삶의 만족감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계층인식은 낮아지는 하향불일치 현상이 있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이 높더라도 지역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또한 높을 경우 자신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자신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계층인식의 불일치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삶의 만족감 변화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감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자신의 소득계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고소득층의 경우 소

득이 낮은 지역에서 삶의 만족감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고소득층은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 자신의 소득계층을 더 낮게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요구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수준과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요구는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일례로,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매우 동의하는 사람들 중 저소득층은 2%에 불과하였던 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복지인식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김유경, 2010).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의의가 있다.

한편,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준거집단과의 비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계층인식의 불일치로 인해 삶의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수준 높은 도시 서비스와 여가·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일종의 낙인 효과(stigma effect)를 예상할 수 있다. 낙인 효과는 본래 교육학에서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생기는 타인의 선입견과 이로 인해 개인의 역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연구의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득층은 스스로 자신의 소득수준을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추후 확대된 논의를 통해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 주

- 1)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과 중앙일보 공동 실시.
- 2) OECD 계층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시점인 2007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월 166만 원 이하).
- 3) Knight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교 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을 사람들(people in the village) 40%, 이웃(neighbours) 20% 등으로 나타났으며, Zhou, 2016)의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이웃, 동급생, 친인척 등 13개 집단 중 이웃과 비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35% 이상)을 차지.

- 4) KGSS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일리서치센터에서 수행한 조사이며, 미국의 시카고대학교에서 40년 이상 수행된 종합사회조사의 틀을 활용함. 2003년부터 2014년 까지 매년 조사 자료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2년에 1회 조사를 실시.
- 5) 상향불일치는 실제 소득수준계층보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하향불일치는 실제 소득계층보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것을 의미.

## 참고문헌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pp. 5-36.
- 강은택 · 홍석동 · 마강래, 2016,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3(2), pp. 117-130.
- 권오규, 2016, '도시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금현섭 · 백승주, 2011, '사회보험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 pp. 61-86.
- 김영모, 1990, 『현대사회계층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유경, 2012,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희, 2015, '주관적 계층과 객관적 계층의 불일치에 따른 여가와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식 · 박세훈, 2005, '삶의 질이 도시의 질이다', 『국토정책 Brief』, 85, pp. 1-4.
- 박지은 · 권순만, 2015,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와 건강 간의 연관성', 『보건과 사회과학』, 38, pp. 95-121.
- 송한나 · 이명진 · 최셋별, 2013,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 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pp. 97-119.
- 오준범 · 이준협, 2014,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이소라 · 홍기석, 2012, '주관적 만족도를 이용한 슬픈형성 이론과 상대소득 가설의 검증', 『사회과학연구』, 38(3), pp. 1-27.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pp. 91-117.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

- 구, 0(1), pp. 47-89.
- 임보영 · 마강래, 2015, 지역 내 준거집단과 비교한 경제적 격차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50(3), pp. 213-224.
- 정희옥, 2016, 계층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격차를 중심으로, 『국제 · 지역연구』, 25(4), pp. 167-196.
-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pp. 89-109.
- 한준 · 김석호 · 하상웅 · 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pp. 1-24.
- Cruces, G., Perez-Truglia, R., and Tetaz, M., 2013,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Distribu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8, pp. 100-112.
- Evans, M. D. R., and Kelley, J., 2004, Subjective Social Location: Data from 21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1), pp. 3-38.
- Evans, M. D., Kelley, J., and Kolosi, T., 1992, Images of Class: Public Perceptions in Hungary and Austral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4), pp. 461-482.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pp. 117-140.
- Graham, C., and Felton, A.,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 pp. 107-122.
- Hyman, H. H., 1942, 『The Psychology of Status. Archives of Psychology』.
- Hyman, H. H., 1960, Reflections on Reference Groups, 『Public Opinion Quarterly』, 24(3), pp. 383-396.
- Johnson, W., and Krueger, R. F., 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pp. 680-691.
- Kelley, H., 1952, Two Functions of Reference Group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2, pp. 410-414.
- Knight, J., Song, L. and Gunatilaka, R., 2009, Subjective Well-being and Its Determinants in Rural China, 『China economic review』, 20(4), pp. 635-649.
- Lora, E. and Fajardo, J., 2013, Latin American Middle Classes: The Distance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Economía』, 14(1), pp. 33-60.
- Lora, E., 2015, The Distance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in the Social Domains of Life, in Mariano Rojas(eds.), 『Springer』, pp. 531-555.
- McBride, M., 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45(3), pp. 251-278.
- Merton, R. K., and Kitt, A. S., 1950,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Reference Group Behavior in Merton, R. K. and Lazarsfeld P. F. (eds.), Studies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e American Soldier, Free Press, pp. 40-105.
- Powdthavee, N., 2007, Feeling Richer or Poorer than Others: A Cross-section and Panel Analysis of Subjective Economic Status in Indonesia, 『Asian Economic Journal』, 21(2), pp. 169-194.
- Ravallion, M., and Lokshin, M., 2002, Self-rated Economic Welfare in Russia, 『European Economic Review』, 46(8), pp. 1453-1473.
- Shibutani, T., 1955, Reference Groups as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0(6), pp. 562-569.
- Sosnaud, B., Brady, D., and Frenk, S., 2013, Class in Name Only: Subjective Class Identity, Objective Class Position, and Vote Choice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Social Problems』, 60(1), pp. 81-99.
- Stouffer, S. A., Suchman, E. A., DeViney, L. C., Star, S.

A., and Williams Jr, R. M., 1949, 『The American Soldier: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Yadav, Y., 2009, Democracy and Poverty in India, 『Indian Democracy: Problems and Prospects』, pp. 26-38.

Zhou, M., 2016, A Study about How Reference Groups Were Determined, Association of Benefit Economics and Finance, Conference Paper.

계재신청 2019.06.03.

심사일자 2019.06.27.

계재확정 2019.06.28.

주저자: 안아림, 교신저자: 마강래